

〈금산몽유록(錦山夢遊錄)〉의 형상화 양상과 특징*

양혜승**

〈차례〉

1. 들어가며
2. 〈금산몽유록〉의 형상화 양상
3. 자기서사의 특성과 의미
4. 나가며

〈국문초록〉

〈금산몽유록〉은 금산에 대한 보존과 개방으로 이견을 보이는 두 신령 사이에 오고 간 편지가 작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몽유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신령의 첩문의 내용이고 분량도 가장 많이 차지한다. 또 이렇게 등장인물이 적음에도 오연옹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상대는 우의 도사로 한정되어 있다. 몽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신령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편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금산의 보존과 개방에 대해 대답을 보이는 두 신령의 입장의 차이가 그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연옹과 우의도사는 사건의 밖에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연옹은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건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인물로 사건의 밖에서 두 인물의 시비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의 첩문을 모두 읽은 오연옹은 각자의 주장에 일리는 있으나 지나치게 맑아 편협한 금산신군이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려는 노량수부의 태도를 모두 평가하는데, 아주 짧은 언급으로만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그가 짧지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중용’의 도이다. 〈금산몽유록〉의 중용의 도에 대한 강조는 신유박해,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 개인적 불우 등 어지럽게 흘러간 당대의 혼란 속에 중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 이 논문은 저자의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학술연구교수

〈금산몽유록〉의 형상화 양상은 단형화 된 서술구조에서 소품문의 변화와 성행으로 인한 영향 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서간문은 사적인 일상에서 공적인 사안까지의 내용을 서사, 의론, 서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편목 또한 다양하며 작가의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짧은 결말이지만 김면운은 몽유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정신적 지향을 토로했다고 할 수 있다. 중용은 난해한 도덕 설교를 늘어놓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극단의 시대에 삶의 주균형 잡기와 관련된 것이다. 또 대충 고민하다 어물쩍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인간의 세계에서 내리는 최선의 결론을 궁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19세기 몽유록은 이 시기 거대한 소설사의 전개에 있어서는 대중성을 담보하지는 못한 주변부에 있던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사문학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보여준 개성적이고 생명력 있는 문학이라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문제의식은 당대에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서사와 논설의 결합을 통해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금산몽유록>, 단형화, 서간문, 중용, 우연, 개성적 글쓰기, 자기서사

1. 들어가며

몽유록(夢遊錄)은 15세기부터 근대전환기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꾸준히 창작되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몽유록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침예한 비판과 진지한 문제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발전해 갔다. 몽유록은 현실계와 환상계를 잇는 오래된 문학적 장치이며 그 꿈에 가탁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드러내는 문학적 관습에 의해 형성된 틀이기도 하다. 정학성¹⁾은 몽유록

1)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1977, 277~299쪽.

은 소외된 사대부들이 역사 과정에 대한 갈등과 신념을 표출하기 위해 허구적 서사 유형을 그들 나름의 사고방식과 문예 전통인 寓言에 의해 변형시켜 창작된 것이라 하였다. 몽유록은 특정한 상황과 계기에 의해 파생된 문제의식을 오래된 문예 전통인 우언으로 형상화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뒤늦게 소개된 19세기 몽유록에 대한 가치 평가는 많이 절하되어 있는데, 19세기 몽유록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와 연구가 소략했던 까닭에 작품의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서사의 편폭이 소략하고 변모 양상을 보이는 몽유록이라 하여 문학적 위상 및 가치 평가가 외면될 수는 없다. 몽유록을 변별적 특질로 추출하여 다양한 갈래로 제시한 연구 성과는 인정하지만, 하나의 개별 장르로만 인식하여 정형화된 구조에서 벗어난 몽유록을 쇠퇴기라거나 몽유록의 가치 절하로만 인식하는 것은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다양한 서술구조를 가진 19세기 몽유록의 형상화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錦山夢遊錄〉²⁾은 19세기 몽유록으로 전대의 몽유록과는 변별되는 특징이 있다. 17세기 후반 이후 장편화 경향을 보이는 몽유록 작품들과는 다르게 서사구조 및 유형화된 몽유록의 일반적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錦山夢遊錄〉은 金冕運(1775~1839, 號 梧淵)이 지은 몽유록으로 그의 문집 《梧淵集》(계명대 도서관 소장, 권4 雜著)에 실려 있다. 작품의 제목 아래 ‘乙酉’라고 적혀 있어 창작 시기를 1825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산몽유록〉은 문집에 전하는 목활자본이므로 규장각 소장 《오연집》의 〈금산몽유록〉과 일치한다. 그간 이 작품은 계명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8년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오연집》의 권4 「雜著」에 수록된 것이 유일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梧淵遺稿》의 3면에서 7면

2) 본 논문은 계명대 소장본 木活字 『梧淵集』과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한문필사본을 참조하였다.

까지 수록된 〈금산몽유록〉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추가적인 이본이 확인되었다. 《梧淵遺稿》는 1872년 정월에 묶은 것으로 한문필사본인데, 2001년 6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운영실에 등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차용주가 『한국한문소설사』³⁾에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작가는 원래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양언석이 《오연집》(권5) 부록의 家狀과 墓碣銘, 梧淵先生文集 後敍 등을 검토해 작가가 김면운임을 밝혀내었다. 차용주에 의해 처음 소개된 당시 이 작품은 ‘中庸之道’를 택하겠다는 ‘작가의식의 반영’으로 몽유록 작품의 본령에서 상당히 벗어난 ‘관념적인 작가의 사유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파악되면서 문학사에서 그다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찾기 힘든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신재홍⁴⁾은 관념적인 작가의 사유를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전대의 몽유록이 지닌 심각한 주제의식이나 서사화 경향과는 다른 작가의 희필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며 소설사적 가치는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정용수⁵⁾는 19세기 영남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면운이 임란 직후인 계사년에 영남 관찰사로 공관에서 병사한 학봉 김성일을 추모하는 학야서원의 건립으로 야기된 병향 문제가 창작 배경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양자간의 알력을 일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주장하게 된 것이고, 이런 배경에는 작가의 평소 학문적 자세와〈천군전〉을 창작한 동강의 후손이라는 가학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며 삼현병향의 문제에 대해 의성 김문의 입장을 반영한 것⁶⁾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당대의 침

3) 차용주, 『한국한문소설사』, 아세아문화사, 1989, 246~247쪽.

4)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역락, 2012, 190~191쪽.

5) 정용수, 「〈금산몽유록〉 연구」, 『반교어문연구』 7, 반교어문학회, 1996, 153~161쪽.

6) 당대 뜰이라는 향촌의 특정한 상황이나 鶴峯 金誠一을 봉안하려던 鶴翁書院을 창건하기 위해 타 문중과의 갈등의 정황을 초래한 점을 창작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밝히려 했다는 점은 〈금산몽유록〉 연구에 대한 색다른 시도라고 할 수는 있으나, 작품의 가치 분석과 위상을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는 연결의 지점이 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예한 현실적 문제를 꿈양식을 통해 형상함이 당시 선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추세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양언석⁷⁾은 이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금산영과 노량수부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극단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몽유자인 오연이 그들의 갈등에 중용의 도를 언급하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만 하고 상대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를 풍자한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서술이 너무 강조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내면적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였다.

김정녀⁸⁾는 우의도사와 몽유자 간에 오고 가야 하는 토론을 상반된 주장을 펼친 편지글로 대신하고 있으며, 바로 이 편지 형식을 통해 몽유 공간의 서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만옹몽유록〉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새로운 서술 구조를 발견, 이를 형상화하여 조선후기 몽유록의 후대적 변모 양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강혜중⁹⁾은 몽유록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오연집》을 중심으로 오연 김면운의 생애와 시문학의 지향과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김면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소략한 현실에 많은 연구 자료와 의의를 제공하였다.

우선〈금산몽유록〉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오연은 늙고 벼슬이 싫어서 강가에 은둔해 축대에 누워 자고 사방에

필요해 보인다. 논자가 자신의 가설을 작품에 지나치게 대입했다는 신해진(신해진, 『조선후기 몽유록』, 역락, 2008, 248쪽)의 견해를 일정 정도 수긍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문집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 7) 양언석, 『몽유록 소설의 서술유형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27쪽.
 8)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서, 2005, 207~213쪽.
 9) 강혜중, 「오연 김면운의 생애와 시문학」, 『남명학연구』 6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9, 137~165쪽.

뜻을 두지 않음.

- ② 무더운 여름날 오동나무에 의지하여 입몽하게 됨.
- ③ 입몽하여 금산의 산정에 도착하여 우의도사를 만남.
- ④ 도사로부터 금산영과 노랑수부가 주고받은 첩문을 보게 됨.
- ⑤ 금산영은 노랑수부에게 아름다운 금산이 세속의 모습을 하고 시끄럽게 된 것은 노랑수부가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질책함.
- ⑥ 노랑수부는 금산영에게 바다가 크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금산영도 모든 것을 수용하기를 바람.
- ⑦ 오연웅은 금산영과 노랑수부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도를 말함.
- ⑧ 도사가 팔뚝을 치며 크게 웃자 오연웅은 각몽함.
- ⑨ 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당대를 비난하거나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웃음을 제공할 뿐이라고 하며 글을 마침.

〈금산몽유록〉은 뒤에 나오는 〈만옹몽유록〉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몽유록의 단형화와 특이한 서술구조로 몽유록의 가치 평가에서 적절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일면이 있다. 우선 역사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몽유록의 전형적 특징은 사라지고 초월적인 인물들의 서간문의 내용이 작품의 반을 이룬다. 특이한 서술구조지만 다양한 서술 양식을 양산한 19세기 몽유록의 가치와 위상을 찾는 작업이 형상화 양상 및 자기서사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2. 〈금산몽유록〉의 형상화 양상

1) 〈금산몽유록〉의 서사 전개¹⁰⁾

〈錦山夢遊錄〉은 梧淵 金冕運(1775~1839)의 작품으로 1825년에 지은

10) 양혜승, 「19世紀 夢遊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6~45쪽 수정 보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 鴨峴에서 태어났으며, 65세에 성산에서 일생을 마쳤다. 부친은 김시채, 모친은 이선운의 딸이며 東岡 金字顛(1540~1603)의 8대손이다. ‘梧淵’이라는 호는 ‘오동나무 연못’이라는 뜻인데, 성인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타나는 새로 알려진 봉황과 관계가 있는 호라고 할 수 있다. 봉황은 사이좋은 수컷과 암컷이 오동나무에 살면서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는 새이다. 만년에 진양 용봉리에 살면서 자호를 龍岡이라 했고, 그 집에 ‘梧淵幽居’라고 써 붙이니 제자들이 오연 선생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김면운은 4형제의 막내로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행실이 의젓하였으며, 독서를 유달리 좋아했다. 경서를 통달하고 역사서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과거문에도 조예가 있었지만,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오연은 德川, 臨川, 鼎岡, 淸谷 書院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유림 사회에서 중임을 맡았고 교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조선 후기 학자이자 의병장인 이만도의 《響山集》13권 〈恥菴崔公墓碣銘〉에 의하면 “오연(梧淵) 김면운(金冕運)과 늘 책을 끼고 산에 들어가 함께 절차탁마하며 공부하였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¹¹⁾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김면운은 향촌의 재야 학자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강 김우옹의 후손으로 남명학을 가학으로 이어받았고, 江左 즉 퇴계 학풍을 계승하였으며, 학문과 인품이 뛰어나 유림의 추앙을 받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오연은 당시 유림 사회와 학문에서 차지한 위치가 큰 인물임에 비해 학계에서의 관심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그가 창작한 〈금산몽유록〉에 대한 연구성과는 많이 소략하다.

〈금산몽유록〉은 그의 문집 雜著편에 제일 먼저 실려 있다. 대개의 몽유록이 꿈속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토론·시연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연의 몽유록은 많은 수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고,

11) 李晩燾, 『響山集』 13, 〈恥菴崔公墓碣銘〉, 與金梧淵冕運每攜書入山. 更攻互磨, 不得不措也.

직접 만나는 인물은 오연웅과 우의도사 둘 뿐이며 그들 간의 대화만 드러난다.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두 신령스런 인물들의 첩문이 작품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단형화 되어 있는 몽유록이다. <금산몽유록>은 <만옹몽유록>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몽유록의 단형화와 특이한 서술구조로 몽유록의 가치 평가에서 적절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일면이 있다.(서론과 중복되므로 삭제) 본고에서는 단형화와 특이한 서술 구조를 가졌지만 다양한 양식의 몽유록이 출현하고 당대 문학적 경향에 조응한 몽유록의 가치와 위상을 찾는 작업이 작품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㉑ 무더위가 돌아 쇠조차도 녹일 만한 계절에 녹음이 뜰에 가득하고 매미 소리가 요란하자, 오연웅은 바야흐로 두건을 벗고 맨 머리로 채로 오동나무에 기대어 자려 눈을 감았다가 문득 꿈을 꾸었다.¹²⁾

이 소설의 전체적인 구조는 ‘입몽-몽중세계-각몽’이라는 몽유록의 일반적인 구조와 같다. 오동나무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몽유의 세계를 들어서는 것, 꿈속의 세계가 신령스러운 절경이라는 것, 몽유자가 그런 절경을 즐기다가 주로 초월적인 인물을 만나게 된다는 遇人의 상황은 몽유록 작품에서는 흔히 보이는 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몽유록의 양식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각몽 부분에서도 놀라 깨어 전말을 기록하는 설정이 기존의 몽유록과 구조를 같이한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 오연웅은 오동나무에 의지하여 입몽하고 몽중 세계에서 錦山의 九井峯, 淸磬窟, 虹門, 龍窟 등 여러 명승지를 구경하였다.

12) 金冕運, <錦山夢遊錄> : 當盛暑流金之節, 綠陰滿庭 蟬聲貫耳, 翁方脫巾露頂, 據梧交睫, 忽一夢焉. <금산몽유록>의 번역은 신해진, 『조선후기 몽유록』, 역락, 2008, 241~248쪽의 번역문을 참조하였고 필자가 조금씩 수정하였다.

이때 羽衣道士가 다가와 流霞酒를 권하며 금산에서의 즐거움이 어떤지 묻는다. 오연옹은 바닷길이 험하고 멀며 궁벽한 곳에 있어 평범한 사람들이 노닐기 어려우니 금산을 영호남과 경기의 접경지역에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금산의 신비한 지경을 세상에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절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자 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세속에 알려지는 것이 이 산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錦山神君과 露梁水府가 주고받은 牒文을 보여준다. 그 첩문을 읽고 중용의 도에 대해 언급하자 우의도사가 웃고 각몽하는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라 할 수 있다.

이 몽유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신령의 첩문의 내용이고 분량도 가장 많이 차지한다. 또 이렇게 등장인물이 적음에도 오연옹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상대는 우의 도사로 한정되어 있다. 몽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신령의 이견을 보여주는 편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금산의 보존과 개방에 대해 대립을 보이는 두 신령의 입장의 차이가 그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연옹과 우의도사는 사건의 밖에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양언석은 김면운 자신의 호인 오연옹이 주인공인 점과 두 신령의 첩문에 대한 판단을 한 오연옹의 말에 주목하여 이 소설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였다.¹³⁾ 하지만 오연옹의 구체적인 성격은 작품 내에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건의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밖에서 두 인물의 이견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거리두기’의 태도를 취한다.

노장사상에서 언어는 그 한계성으로 인해 의미를 가둔다고 주장한다. 즉 언어가 존재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언어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

13) 양언석, 「夢遊錄小說의 敘述類型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夢遊錄小說의 敘述類型研究』, 국학자료원, 1996. 재수록), 118~149쪽.

문이다. 도가의 이런 언어관은 ‘언어 최소주의’라는 방법론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¹⁴⁾

〈금산몽유록〉의 오연용도 말을 최소한으로 아끼며 사건의 밖에서 두 인물의 시비에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두 신령의 시비라는 사건에 있어서는 외부자이기 때문이다. 세종 때의 명재상인 黃喜(1363~1452)에게 집안의 노비들이 서로 다투며 판정을 요구했을 때, 그는 둘 다 옳다고 했다. 옆에 있던 부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주장도 옳다고 했다. 이 일화를 통해 볼 때 황희가 시비 판단을 내렸으므로 논쟁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논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중용은 양극단의 어중간한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는 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오연용도 최소한의 언어로 균형의 자세인 중용을 강조한 것이다.

④ 산자락의 벼랑에 부딪쳐 떨어지는 폭포의 절경, 번성한 사찰들, 가장 卓絶한 동남쪽의 경치 등은 우뚝하여 속세와 동떨어졌으니 조정의 命吏, 刺史, 守丞, 風人, 韻士 가운데 고상한 풍채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면 일찍이 그 지경을 밟을 수가 없도록 하고 그 나루를 물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요사이 와서는 마음껏 즐기는 것이 하나의 풍조가 되어 절뚝거리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떨치고 올 정도이니, 사람들마다 크고 따뜻한 신을 준비하고 짐짐마다 튼튼한 나귀를 준비합니다. 山翁과 溪老들도 지팡이를 짚고 줄지어 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오는데 물고기 떼와 기러기 떼처럼 가지런히 연달아서 오니, 일일이 대처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세속 사람들이 신선의 집 앞에 혼잡스럽게 모여들어 속된 말의 떠들썩한 소리가 신령스런 관문에서 왁자지껄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당돌하게도 자연의 경치에 대해 시

14) 정필모,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노장사상의 인식론과 언어관」, 『언론과학연구』 12, 한국지역언론학회, 2012, 142~143쪽.

를 짓는답시고 잠꼬대하듯이 글씨를 마구 써서 진경을 누설하여 여염에 과장되게 퍼트리니 속세에다 그 늘어놓은 바가 그 절경을 제대로 알아본 훌륭한 문장가에 의해 씌어 세상에 알려지는 행운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부처의 머리에 똥을 묻힌 것처럼 누가 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는 노량수부의 직분이 길목의 나루터를 맡아 관리하는 것이거늘, 게을러서 그 소임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아 임의로 선비들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지경에 까지 누를 끼친 것입니다. 이후로는 매우 철저하게 징계하기를 더할 것일진댄, 풍백이 노하여 꾸짖고 波神도 함께 성내면, 속세의 수레는 길목의 나루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고 속세의 배도 바다 가운데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니, 신비스러운 지역을 다시는 욕되지 않게 하십시오.¹⁵⁾

㉔ 송구스럽게도 첩문을 보내셔서 우리 수부에게 죄를 물으시며, 속세의 유람객들이 번다히 왕래하여 뛰어난 절경이 더럽혀진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 감히 문책함을 피하겠습니까?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금산이라는 곳은 천하의 이름난 봉우리요 해동의 신선이 사는 곳이라, 산수와 수석의 절경은 곧 楓嶽과 壺瀛과 더불어 서로 우열을 다투니, 사람의 눈과 귀를 흐뭇하게 하고 사람의 입을 향기롭게 합니다. 영지와 주초는 하인들도 또한 그 기이한 향기를 알고, 상서로운 기린과 봉황은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도 다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저 구름 봉우리에 올라 장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면 대저 같을 것일진댄, 애초부터 어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별을 두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들으니 천지는 버릴 물건이 없고, 성인은 버릴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¹⁶⁾

15) 金冕運, 〈錦山夢遊錄〉: 與夫砵崖湍瀑之勝, 琳宮梵宇之盛, 冠絕東南, 超截塵寰, 自非○朝廷, 命吏刺史·守丞及風人·韻士之有仙風道味者, 會不能躡其境而問其津. 柰之何? 挽近以來, 遊行成風, 跋蹙咸聳, 人徂孟陽之履, 家蓄浩然之驢, 山翁溪老, 聯筇而比跡, 李四張三, 攜手而渡海, 魚魚雅雅, 應接不眠. 塵容俗狀, 雜選於雲扃, 俚語聾音, 填咽於靈關. 又或唐突風月, 嗆呀雲煙, 洩漏真境, 誇張閭里其所鋪述, 不足爲鈞錡之幸, 而適足爲佛頭之穢. 此則, 露梁水府, 職管要津, 謾不詞問, 任其舟楫馴致, 貽累於弊境也. 過此以往, 痛加懲艾, 風伯嗔呵, 波神共怒, 逗俗輪於渡頭, 回塵航於洋中, 勿令靈邱再辱.

㉠ 대개 헤아려서는 두루 알 수 없지만, 꿈틀거리는 것들이나 헤엄치는 것들이나 알을 따듯하게 품어 기르는 것이나, 각기 그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고 각기 자신의 양만큼 마시게 하니, 이야말로 바다가 위대하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추녀가 와서 얼굴을 비춰보아도 맑은 거울을 훼손함이 없고 날아다니는 먼지가 잠시 가린다고 하여도 큰 홀의 바탕에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영명하신 신군께서는 너그럽고 깊은 도량으로 힘써 수레를 만드는 장인의 마음을 따르시어 산문을 활짝 열어 특별히 산객들을 영접하도록 허락해 주셔야만, 크고 훌륭한 덕이 빛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 수부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감히 하찮은 말을 고하였으니, 우러러 신군의 용서를 바라나이다.¹⁷⁾

㉡는 금산신군이 노량수부에게 보낸 첩문이며 ㉠와 ㉡는 노량수부의 답장이다. 금산신군의 첩문에 의하면 금산은 하늘이 그 신비스러움을 아끼고 땅이 그 절경을 숨긴 곳이어서 진기한 금수가 궁림 속에서 뛰놀고 기화요초가 만발한 선원과 같은 신성한 곳이다. 옛날에는 풍류 인사가 아니면 찾아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속세의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오고 금산을 시끄럽게 하고 더럽힌다 하면서 금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나루터를 지키는 직분을 맡고 있는 노량수부가 태만하게 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책한다. 이에 노량수부는 천하의 이름난 금산을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라고 하면서 어찌 차별을 둘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16) 金冕運, 〈錦山夢遊錄〉: 辱垂靈牋, 問罪水濱, 責之以俗客旁午, 玷汗名區. 鄙府忝在襟喉, 安敢辭責? 第竊惟, 錦山一區, 天下名峯, 海東仙窟, 煙霞水石之勝, 直與楓嶽壺瀛, 相上下, 鑿人耳目, 香人牙頰. 夫靈芝朱草, 廝隸亦知其奇芬, 祥麟瑞鳳, 婦孺咸願其先覩. 彼一躡雲峯, 以資壯觀, 人情大抵同然, 初豈有知愚賢不肖之間哉? 況又聞之, 天地無棄物, 聖人無棄人.

17) 金冕運, 〈錦山夢遊錄〉: 蜿蜒遊泳, 含煦卵育, 各適其願, 各充其量, 此海之所以爲大也. 嫫姆之來照, 無損於明鏡, 遊塵之暫翳, 無害於大主. 更願明靈, 恢弘山藪之量, 勉副輿人之情, 洞開山門, 特許迎接, 則盛德光輝, 永有辭於海邦. 敢控蕘說, 仰希靈恕.

성인의 예를 들어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능히 세상의 변화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수부는 맑은 물과 흐린 물, 잔물과 싱거운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다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금산 또한 넓은 도량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이들의 첩문을 모두 읽은 오연웅은 각자의 주장에 일리는 있으나 지나치게 맑아 편협한 금산신군이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려는 노랑수부의 태도를 모두 평가하는데, 그는 아주 짧은 언급으로만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그가 짧지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중용’의 도이다. 작품의 결구는 이런 언급과 함께 각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런 짧은 결말로 전대의 몽유록이 지닌 심각한 주제 의식이나 이 시기에 전개되는 서사화 경향과는 동떨어진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문제 의식이나 주제 의식이 약하다고 평가되어 범박하게 이해된 것이다. 하지만 ‘중용’이라는 짧은 글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㉞ 금산은 정숙한 여자나 은자 같아서 오직 한 점이라도 더럽혀질까 두려워하고 수부는 달인이나 군자 같아서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가 없으니, 또한 각각 자기의 뜻을 펼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백이는 고결한 의리가 뛰어났지만 막힌 것이 폐단이었고 유하체는 화합에 뛰어났지만 공손하지 못한 것이 폐단이었으니, 백이도 치우쳤고 유하체도 정도를 넘은 것입니다. 옳거나 그르거나 어쨌든 중용을 행하는 것만이 군자의 행할 바이옵니다.¹⁸⁾

㉟ 그 큰 것에 극진한 뒤에야 中을 구할 수 있으며 그중에 머무른 뒤에야 큰 것이 있을 수 있다. 큰 것은 또한 성인의 소임이니, 백이의 ‘지나친 결

18) 金冕運, 〈錦山夢遊錄〉: 錦山, 靜女幽人, 惟恐一點之受汚, 水府, 如達人長者, 於物無所不容, 亦各行其志耳. 然伯夷一於清而其弊隘, 柳下惠一於和而其弊不恭, 要之不夷不惠, 可否之間, 其惟中行 君子之所履乎.

백'과 유하혜의 '정도를 넘은 온화함'처럼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힘써서 크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¹⁹⁾

㉑는 <금산몽유록>에서 각몽 전에 오연옹이 두 신령의 입장을 평가한 것이며, ㉒는 송나라 張載의 《正蒙》 <中正篇>에 나오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은 논리체계가 흡사한 면이 있다. '橫渠先生'이라 불리던 장재는 11세기 중국 사회의 혼란을 체험하고 고민했던 철학자이다. 당시 북송이 처했던 外患과 굴욕적인 외교 조약들을 국경 지역 횡거진에서 오랫동안 살며 직접 보고 겪은 탓에 병법에 깊은 관심을 두며 자연과학적 연구를 중시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인과 예를 탐구하는 유학자로서 필수적인 인륜 연구에 깊이 몰두함으로써, 관념론에 치우치지 않고 유물과 유심을 한데 섞어 통찰하는 제 3의 시선을 보여주게 된다. 《정몽》은 그의 이러한 실천적이고도 心性적인 철학을 복합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

《孟子》의 <萬章> 편에는 集大成과 관련하여 비슷한 구절이 있다. '伯夷는 성인으로서 맑은 사람이고, 伊尹은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고 柳下惠는 성인으로서 조화로운 사람이다. 孔子는 성인으로서 때를 이는 사람이다. 공자를 일러 집대성이라 하는데 집대성이라는 것은 金聲玉振이다.' 라는 구절인데, 여기에서 집대성은 공자 즉 재주, 지혜, 인덕을 충분히 조화롭게 갖추어 완성된 인격을 의미한다. 즉 중용의 도가 추구하는 성인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용은 어떤 특징을 지닌 윤리적 삶일까? 중용은 반대되는 가치와 성향들이 배척되지 않고 창조적으로 종합된다. 사람을 대우할 때 관대함과 엄격함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 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면서도 엄격한 것'이 중용이다. 이처럼 중용은 상반되는 성질을 상황에 맞게끔 창

19) 張載, 『正蒙』, <中正篇>. : 極其大而後中可求, 止其中而後大有. 大亦聖之任, 雖非清和一體之偏, 猶未忘於勉而大爾.

조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또 중용의 특성은 공정성에 기반을 둔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한다. 중용은 극단과 모험의 시대에 쓰였다. 극단주의가 있는 곳에는 고통을 분담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곳에는 사람에 대한 무절제한 폭력과 강압이 판을 치게 된다. 중용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다.²⁰⁾

〈금산몽유록〉의 중용의 도에 대한 강조는 그와 교류한 정약용, 이학규 등 남인 계열 문사들의 유배 및 신유박해,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 개인적 불우 등 어지럽게 흘러간 당대의 혼란 속에 중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그의 문집에는 편을 가르지 않는 다양한 소통, 공감과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기문의 학통인 남명학의 유가적이고 도가적인 이중적 성격 또한 작품 창작에 영향을 끼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남명학과 문학의 핵심 개념인 ‘말이 간략하면서도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達意爲主’의 문학 정신도 작품 창작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작품의 형식보다 의미 있는 내용의 함축적 전달을 지향하는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2) 〈금산몽유록〉의 형상화 특징

〈금산몽유록〉은 단형화된 서술 구조와 함께 서간문의 특징을 갖춘 독특한 몽유록이다. 이런 특징은 당시 소품문의 변화와 성행으로 인한 영향 관계를 감지할 수 있다. 18~19세기 소품문의 성행은 서간문의 창작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장편의 학술토론문, 正論書, 청탁서, 안부를 묻는 내용에서 벗어나 情致가 풍부하고 작가의 性靈이 담긴 소품의 서간을 즐겨 창작하였다.²¹⁾ 김면운의 문집에도 다양한 문사들과 교류하며 안부를

20) 신정근, 『중용, 극단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사계절, 2010, 48쪽.

21) 안대회, 『조선 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회연구』 28, 한국한문

문거나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토로하는 서간문이 많은데, <금산몽유록>의 구조가 서간문 형식이었던 것은 이런 소품문의 성행과 관련이 있다. 서간문은 사적인 일상에서 공적인 사안까지의 내용을 서사, 의론, 서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편목 또한 다양하며 작가의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두 신령의 공식적인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첩문을 보고 오연옹이 판단하는 내용은 서간문의 특징을 잘 살린 몽유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신령의 시시비비는 ‘금산’이라는 신령한 장소의 보존과 개방의 입장 차이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 배경으로 제시되는 금산은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공간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보존과 개방에 대한 내용 자체가 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 노량수부의 직무 태만 때문이라며 금산 신군은 질책하고 있지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지상의 어디쯤의 선계의 이미지로 그려진 것도 조선 후기 산수유람의 유행과 당시 국토에 대한 현실적 관심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적인 것, 생활 주변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당시로서 선계도 강원도, 경상도 등 자신들이 사는 지역 어느 곳에 있을 것이며, 지상 어느 곳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연히 그곳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곳의 모습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졌던 것도 역시 사회적 분위기였다. 황당한 어떤 것을 바란 것이 아니다. 삼정의 문란, 가혹한 수탈 등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없는 사회를 바라며 구체적으로 그려본 것이 자연스레 지상선계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이슬을 먹고 산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저 자신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없는 세계, 즉 가혹한 수탈이나 불합리한 지배 제도가 없는 세계, 놀고먹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여 의식주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를 그려내게 된 것이다. 중기의 선계

가 비실재적이고 다소 환상적인 공간이었던 것과는 다른,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선계가 그려지게 된 것은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와 연결된다.²²⁾ 두 신령의 시비는 입장 차이와 대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배경인 이름답고 신령스런 금산은 낭만적인 인상을 준다. 이것은 당시 산수유기의 성행이라는 영향이 있겠지만, 김면운의 학통인 남명학파의 영향이 크리라 여겨진다. 남명학파의 문학에는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교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런 현실주의와 낭만주의는 이들이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개혁하고 초극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이라 하겠다.

㉑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진실로 요긴하기는 하나 모름지기 마음에 일어나는 기미를 살피고 신독의 공부에 힘써서 천리가 늘 보존되게 해야 마음이 곧 맑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일은 모두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절대로 이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맑은 것을 중시하는 까닭은 단지 의리가 밝게 드러나 일의 마땅함에 응할 수 있게 되고자 해서일 뿐입니다. 만약 사물을 물리쳐 끊어버려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단의 학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²³⁾

㉒ 세상 사람들은 한갓 산수 유람이 돌아다니면서 노는 것인 줄만 알고, 산수의 즐거움이 자연 속에서 그 이치의 즐거움을 찾아 즐기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술잔을 잡고 술을 마시면서 참된 즐거움의 바깥 세상에서 기심을 잊기도 하고, 음풍농월하며 방랑 속에서 마음을 놀게 하기도 한다. 산을 가리켜 산이라 하고, 물에 나아가 물이라 하면서도 산이 산이 되는 이유와 물이 물이 되는 까닭을 알지 못한다. 이 같은 사람이 어찌 산을

22) 서신혜, 「〈만하몽유록〉을 통해 본 애국계몽기 선계 서사의 양상」,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101쪽.

23) 金字顯, 「經筵講義」, 『東岡集』 卷 12 張 16b(『韓國文集叢刊』 50 355쪽), 字顯曰 淸心固要 須是審幾慎獨 常使天理存在心 乃淸也. 且世事盡是人事 切不可惡 所貴好心淸者 只欲義理昭著 應得事宜耳. 若要屏絕事物 使心淸淨 則流於異學也.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참된 경지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²⁴⁾

㉔는 김면운의 8대조인 김우옹의 『동강집』에 있는 글이다. 김우옹은 <천군전>을 창작할 정도로 유가적 심성 수양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군전>에서 천군은 다스림의 요체인 ‘마음’이므로 마음의 증용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김우옹은 마음 공부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內觀을 통해서만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이단의 학문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특히 불교를 철저하게 배척했는데, 당시 명종이 보우를 통해 불교를 진흥시키려 한 상황에서 그 마음 수양의 의지가 더욱 드러난다.

김우옹의 동문인 姜翼(1523~1567)이 남명선생 조식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도 불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유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그는 ‘파리가 비록 똥을 찐다고 해서 어찌 백옥을 해칠 수 있으며, 조각구름이 가린다고 해도 어찌 태양의 밝음을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²⁵⁾ 라고 하였는데, 유교를 백옥과 태양에 견주어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구절은 노량수부가 답한 첩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견된다. ‘추녀가 와서 얼굴을 비춰보아도 맑은 거울을 훼손함이 없고 날아 다니는 먼지가 잠시 가린다고 하여도 큰 홀의 바탕에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²⁶⁾ 라고 한 구절은 ‘금산’의 존재를 유교와 비견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금산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은 19세기라는 첨예한 현실에 대한 우의라고

24) 李光友, 「送河覺齋沈歸德川序」, 『竹閣集』 卷1 張10b), 世人徒知山水之遊 遊於遊 不知山水之樂 樂其樂 操觚攜酒 忘機於眞樂之外 吟風弄月 遊心於放浪之巾. 指山謂山 卽水謂水 不識山之所以爲山 水之所以爲水 此何足與論於樂山樂水之眞境乎?

25) 姜翼, 「上南冥曹先生書」, 『介庵集』 卷上 張9b / 『南冥集』, 亞細亞文化社刊, 1982, 447쪽. 蒼蠅雖點, 何害於玉之白. 片雲雖陰, 何損於日之明.

26) 媼姆之來照, 無損於明鏡, 遊塵之暫翳, 無害於大圭.

할 수 있으며 그럴수록 극단의 자세를 넘어 균형의 자세인 중용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㉞는 李光友의 문집에 있는 글로 덕천으로 돌아가는 河沔을 보내면서 쓴 편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산수유람의 특별한 의미를 찾고 있다.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진경을 찾고자 한 것이다. 남명학파는 일상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자연을 탐구하였으며 자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합일의 논리로 이해하려 하였다. 이런 자연탐구의 방법으로 특징적인 것은 도가사상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성여신과 광재우로 대표되는 남명학파의 이 같은 경향은 물론 현실을 외면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극에서 오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을 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현실적이며 유가적인 언어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도가적 자유의지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²⁷⁾

이런 양상은 금산이라는 선계의 공간과 초월적인 존재인 신령의 등장, 우의 도사와의 만남 등에서 형상화되어 있다. 선계가 등장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침예한 현실에 대한 역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는 현실을 완전히 초월한 선계, 사후 세계의 이미지보다는 현실과 이어진 상상적 공간, 즉 산수 간 어디에 존재할 만한 공간으로 그려진다.²⁸⁾ 즉 현실을 환기시키는 선계의 공간이다. 이런 도가적 양상은 오연의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㉞ 개 짓고 닭 우는 소리 인근 고을에 미치니 犬吠雞鳴達四隣

27) 정우락, 「남명학파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이중구조와 의미지향」,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48쪽.

28) 하지영, 「18~19세기 꿈의 형상화와 자기표현 방식」, 『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118쪽.

남북으로 이웃한 마을이 서로 친하구나	村南村北自相親
풍속이 순박하여 아름다우니	風淳俗朴斯爲美
지금 사람이여! 옛 사람에게 부끄러워 말아라. ²⁹⁾	莫使今人愧古人

㉔ 묻노니 무슨 일로 흰머리 성성한지	問渠何事髮星星
무릎 안고 공연히 누실명 ³⁰⁾ 을 읊조리네	抱膝空吟陋室銘
서리 내린 소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	霜後松風聲滿壑
골짜기에 가득하고	
석 달 전의 매화 소식에 뜰엔 향기가 피어나네	臘前梅信縷生庭
항상 가난하고 배우지 못함에 걸미첩 ³¹⁾ 을 쓰더라도	長貧不學顏公帖
고집 부려 노자경을 보려거든	守拙要看老子經
이 가운데 쓸데없는 물건 적다 하지 말고	莫道此間長物少
꽃심고 대나무 십여 병풍을 두르라네 ³²⁾	蒔花插竹護軒屏

㉔는 남명학파에서도 도가적인 초월의지를 시로 많이 남긴 성여신의 작품이다. 그는 노자의 小國寡民을 현실에 기대어 그려보고 있다. 노자는 소박하고 작은 소국과민의 사회를 도연명의 《도회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사회, 이상국가로 보았다. 성여신은 이 시를 통해 노자의 소국과민 사상을 수용하면서 평화롭고 순박한 이상적인 사회를 현실에 투영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남명학파는 유가를 지향하는 기본적 태도를 견지했지만, 도가와 같은 이교의 사상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드

29) 成汝信, 「里仁爲美」, 『浮查集』 권1 장13b(『韓國文集叢刊』 58, 529쪽)

30) 劉禹錫이 지은 작품. 자신이 놓인 초라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기개를 뜻한다.

31) 쌀을 구걸한 고사. 당나라 顏真卿이 李太保에게 “생계를 꾸리는데 졸렬해서 온 집안 이 죽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떨어졌으니 참으로 걱정이 되어 애가 탈뿐이다.(拙於生事, 舉家食粥, 來已數月, 今又罄竭, 只益憂煎, 輒恃深情, 故令投告, 惠及少米, 實濟艱勤, 仍恕幹煩也)”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고사를 말한다.

32) 金冕運, 「用前韻自述」, 『梧淵集』.

러난다.

㉔는 오연의 시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물어도 노인은 초라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 그런 노인의 고고한 기개는 함련의 서리 내린 소나무와 매화향과 견주어진다. 경련의 걸미첩 관련 고사는 안진경의 고사로 노자경 읽기를 통해 현실의 곤궁함을 초극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니 미련에서는 무욕의 자세를 견지하려면 물욕을 버리고 꽃 심고 대나무 심어 그 의지를 더 굳게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시를 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도가적 의지로 초월하려는 오연의 작가 의식과 남명학파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학문적인 출발점이나 사상의 바탕은 유학에 있었지만, 혼란한 정치적 상황, 신변의 불우 등에 의한 제약으로 도가사상에서의 사상적 굴절을 경험한다. 오연의 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명학파에게서 현실에 대한 초월과 참여의 이중구조는 현실참여에 그 중심을 두면서 초월적 경향을 일부 드러내 보였고, 도가와 유가 사상은 유가 사상에 초점을 두면서 도가사상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금산몽유록〉의 몽유가 우의도사의 웃음에 놀라 깨는 것으로 끝나지만, 작품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후기가 있다.

㉕ 마침내 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여 금산몽유록이라고 이름 지어 호사자들에게 한바탕 웃음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감히 지금의 세상을 헐뜯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훈계하려는 것뿐이다. 보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를 바라노라.³⁴⁾

여기에서 작가는 자신이 〈금산몽유록〉을 지은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33) 정우락(2003), 앞의 논문, 42쪽.

34) 〈錦山夢遊錄〉: 遂記其顛末, 爲錦山夢遊錄, 以供好事者一笑, 非敢譏切當世, 鑑砭俗耳也. 觀者 幸有以恕焉.

생길까 조심하며 ‘한바탕 웃음의 제공’이라는 말로 작품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후기는 역설적으로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짧은 후기는 주지한 것처럼 남명학과 문학의 핵심 개념인 ‘말이 간략하면서도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達意爲主’의 문학 정신 즉 작품의 형식보다 의미 있는 내용의 함축적 전달을 지향하는 표현 방법에서 기인한 듯하다.

후기의 내용 중 ‘鑑砭’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념적이라거나 자신의 관심 표시라는 해석으로만 이해하게 두지 않는다. 북송의 철학자 張載가 학당에 두 개의 창문 중 동쪽 창문에 砭愚를 서쪽 창문에 頂頑을 걸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정이의 조언으로 펴우는 東銘³⁵⁾으로 정완은 西銘으로 개칭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천인합일을 주장하는 서명이 더 유명하다. 하늘과 군주와 효에 대해 논하는 내용의 방대함이 이 글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동명인 펴우는 ‘어리석은 자에게 돌침을 놓아 깨우쳐 경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기 성찰의 의미가 강하다.

김면운은 몽유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정신적 지향을 토로했다고 할 수 있다. 중용은 난해한 도덕 설교를 늘어놓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극단의 시대에 삶의 주균형 잡기와 관련된 것이다. 또 대충 고민하다 어물쩍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인간의 세계에서 내리는 최선의 결론을 궁구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김면운의 문집에 있는 다양한 글과 <금산몽유록>의 다음 글인 <夢狂錄解>를 비교분석하여 그의 자기서사의 의미 지향에 대해 고찰

35) 張載, 『古文眞寶』後集 卷十, <東銘>, 戲言은 出於思也요 戲動은 作於謀也라 發於聲하며 見乎四肢어늘 謂非己心이면 不明也요 欲人無己疑면 不能也니라 過言은 非心也요 過動은 非誠也라 失於聲하며 繆迷其四體어늘 謂己當然이면 自誣也요 欲他人己從이면 誣人也니라 或者謂出於心者를 歸咎爲己戲하고 失於思者를 自誣爲己誠하여 不知戒其出汝者하고 反歸咎其不出汝者하여 長假且遂非하니 不知孰甚焉고

해 보고자 한다.

3. 자기서사³⁶⁾의 특성과 의미

오연 김면운은 자신의 문집에 많은 시와 서간문을 남긴 바 있다. 오연은 자신의 문집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 교류와 소통, 솔직하고 공감적 성격이 강한 작품을 많이 썼다. 그는 다양한 방면의 문사들과 교류가 많았으며 많은 서원의 원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있어 대상을 특별히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물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가 교류한 인사들과의 시와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삶과 솔직한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어 자기서사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 시를 통한 교류도 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간문은 친근하고 내밀한 속성을 가지므로 사적인 의식을 기록하기에 적합하며, 자기서사가 잘 드러나는 산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몽유록〉의 구조가 서간문인 것은 그의 편지쓰기를 통한 교류가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말하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서사는 당대 문인들의 글쓰기에서 변격이라 할 수 있는 내용과 구조 변화의 양상에도 나타난다. 〈금산몽유록〉의 단형화와 서간문 구조도 그런 시대적 조류와 함께 한다.

주지한 것처럼 이 시기에는 일기와 같은 자기 글쓰기나 自傳, 自撰墓誌銘, 自撰年譜, 自挽詩 등 기존 형식의 비틀기를 통한 자기 서사 작품이

36) 여기에서 자기서사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서사(narrative)’는 이야기(story)가 있고 화자(teller)가 있는 모든 문학 텍스트이다. 서사 중에는 글 쓰는 사람 자신의 내면적 특질이나 자신의 인생 자체를 진술하는 데 주력한 글들이 있다. 이러한 자기 진술의 글쓰기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서사적인 시에서부터 편지, 일기, 수필적 글 혹은 자서전, 자전적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화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 서사」,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240~241쪽).

다수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자기표현 욕구’ 및 ‘전형으로부터의 탈피’³⁷⁾라고 할 수 있다. 오연의 문집에도 이런 양상이 잘 드러나며, 그가 창작한 대부분의 문학 작품의 성격에도 사적인 내면의 상황과 교감을 통해 자기서사가 표출된다. 특히 그의 문집에 있는 문학 작품은 <금산몽유록>을 창작한 1825년을 전후로 창작한 시와 서간문이 많이 나타난다. 오랫동안 문집으로 간행되지 못하여 유실한 부분도 있겠으나 교류하던 벗들의 처지와 노년기에 들어 찾아온 녹록치 않은 상황과 건강 문제 등이 그에게 자기서사의 글을 쓰게 만든 것이다.

1) 다양한 인물과의 교류와 소통

문집에는 茶山 丁若鏞(1762~1836), 洛下生 李學達(1770~1835) 등 근기 남인 계열의 대표적 인물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³⁸⁾ 다산에게 보낸 편지는 1825년경 쓴 것으로 오연은 약관 초에 돌아가신 형을 따라 문하에서 수년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덧 30여 년이 흘러 백발이 되었다면서 유배를 끝내고 남양주에 거주하던 다산에게 편지를 보냈다. 소유에게 천거를 받아 상경하였다가 질병으로 바로 귀경하게 되어 직접 찾아뵙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알리는 안부 편지이다.

낙하생 이학규와 주고받은 총 3편의 편지는 일상과 심경 등에 대해 진솔한 감정을 주고받은 것이다. 낙하생 이학규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고 외가에서 외할아버지 李用休에게 교육을 받았다. 실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외삼촌 李家煥 등이 있던 당시의 星湖家門의 실학적 학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이학규는 弱冠의 나이에 文學으로 명성을 얻어 정조의 인정을 받았다. 벼슬이 없는 선비임에도 <奎章全韻>의 편찬사업에 참여했

37) 정용건, 「조선 후기 문집 자서의 창작과 그 특징」, 『민족문화사 연구』 64, 민족문화사 연구소, 2017, 84쪽.

38) 『梧淵先生文集』 권2, <與丁茶山 若鏞>, <與李亨叟 學達>, <答李亨叟> 2편.

다. 또 왕명에 의하여 元子宮에 내릴 책을 교감하고 수정·보완하여 바쳤다.

이학규는 1801년(순조 1년) 신유사옥에 三從叔 李承薰 등과 함께 구금됐고 조사결과 친주교와는 무관함이 밝혀졌음에도 전라도 綾州(지금의 화순군)로 유배된다. 그해 10월, 內從弟인 黃嗣永이 친주교 박해의 실상과 해결책을 비단에 적어 北京에 있던 서양 신부에게 보내려다 발각돼 참형을 당하는 帛書事件이 발생한다. 이 때에 내종제인 관계로 다시 국문을 받고 김해로 유배지를 옮겨 24년에 걸친 긴 유배 생활 끝에 1824년(순조 24년) 4월에 아들의 재청에 의하여 방면됐다. 오연은 낙하생의 객지 생활의 안부를 묻고 격려의 말과 자신이 겪은 집안의 여러 가지 우환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이처럼 오연은 당대 다양한 문사와 폭넓은 교류를 한 인물로 그의 인품은 소통과 공감에 뛰어난 면이 있었다.

㉑ 저는 지난 봄 은혜를 입어 고향에 돌아와 선영에 절하였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 때를 생각해 보니, 연로한 어머니는 문을 반쯤 열고 눈물을 흘리셨고, 아내와 자식들은 서로 마주 보며 오래도록 통곡했습니다. 이 때에 오직 아득하게 무덤만 있을 뿐이니, 사람이 목석이 아닌지라 간장이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작은 집은 담장도 없는데, 어린 손자는 한참을 찬찬히 보다가 절을 하고, 생면부지의 며느리는 눈물 머금고 목이 메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다음 날 크게 토하고 나서, 겨우 떨치고 일어나 한양에 들어갔습니다. 청니방에 있던 옛집은 궁하여 잡초 우거진 터가 되었고, 손수 심었던 나무들은 높게 자랐거나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친인척과 옛 친구, 문하의 서리와 하인에 미처서는 10여 명을 제외하면 모두 귀신의 명부에 떨어졌습니다. 담장이 잇닿은 이웃집들은 면목이 크게 변하여 노새의 먼지와 말똥은 다만 사람의 뜻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³⁹⁾

39) 「富金勉運書」, 『洛下生集』 冊 19○洛下生藁[下] 卻是齋集：僕去春蒙恩宥，歸省先壟。憶下南時老親闔門涕泣，妻孥相向長慟。此時惟漠然抔土，人非木石，肝腸餘幾。斗屋無牆壁，稚孫熟視良久乃拜，子婦面生，猶含涕嗚咽，間起居。乃經日大吐下，甫抖擻入漢師。故家在青泥坊，鞠爲蕪墟，所手種木植，或喬或槩。姻親故舊

㉗는 김면운이 보낸 편지에 낙하생 이학규가 답하여 보낸 서간이다. 이 학규와 편지를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가 된 것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같은 스승이라는 학문적 교감과 함께 서로의 상황을 꽤 자세하게 알고 지낸 듯하다. 김면운이 이학규에게 보낸 편지에는 5살 위인 이학규에게 노형이라고 부르며 세상사의 고단함과 비애,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리며 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학규도 큰 죄를 지은 상황이 아 닌에도 긴 유배 생활로 지식 둘과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가세가 크게 기울 어 고통스러운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서간문에 는 당시의 상황과 심경의 허심탄회한 토로라는 자기서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학규는 오랜 유배 생활을 통해 현실주의적 문학을 구축한 문사이다.

강우 유럽계의 명망있는 인물로 문사들과 다양한 교류를 했던 김면운의 눈에 비친 현실은 시비논리가 가득하며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그 자체였을 것이다. 신유사옥과 함께 스승이었던 다산 정약용과 학형이었던 이학규의 유배 등으로 인한 남인의 몰락 등 어지러운 현실에 대한 자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서간문이 오고 가던 1824년은 이학규가 오랜 유배 에서 해배 되었지만, 가세의 몰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던 해이기도 하고 김면운은 가족상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삶에 대한 애환과 비탄이 그대로 드러난다.

㉘ <전운을 써서 회수 김령이 보내온 두 수에 사례하다>

<用前韻謝金晦叟 櫺見贈 二首>

맑은 향기 사람을 물씬 감돌아 가득하고	淸芬馥馥襲人藹
아름다운 풍채 예스러운 빛 깊으니 정녕 기쁘네	政喜丰儀古色濛
푸른 갈대 한 굽이 내가 늘 그리웠네	一曲蒼葭吾永懷
온 산이 단풍 숲 되니 그대 어찌 지냈는지	萬山紅樹子何事

逮門下胥隸，除十許人外，悉落鬼簿。連牆比屋 面目一變，驢灰馬通，徒亂人意。

모쪼록 옳은 말로 서로 연마하고	好將法語要相研
헛된 말장난으로 단지 희롱하지 마세	莫遣浮辭但劇戲
늦가을 강가 서리 낀 달이 서늘한데	秋晚江湖霜月涼
갈대 곁에서 즐고 있는 외로운 못기러기 불러보네	喚群孤雁傍蘆睡

㉔ 5언과 7언 두 편을 보내 주셨으니 저를 도외시하지 않는 정을 깊이 입었습니다. 생각하면 저의 시는 성률에 어두워 그 동안의 줄구가 사람들이 들어 알기에는 부족하였으나, 우연히 고명한 분께 알려지게 되어 점화의 은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요사이 보내주신 글의 내용이 넘치고, 칭찬을 길게 해 주시며, 문단에서 노숙해지기를 기대하시는 듯하지만, 저는 후전을 짓습니다. 집사의 문장이 넉넉하고, 유려하며 말씀이 넘쳐나니, 제가 그 말씀의 지나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몇 마디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왕복 수창하면서 논의하여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형식적인 말들을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범어양규로써 어둡고 용렬하게 됨을 경계하여, 처음의 실수를 나중에 만회하도록 하는 것을 직량다운한 벗에게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이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이을 수 있도록 하고 옥 같은 시구 이후에 서로 화답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줄시를 멋대로 지은 것을 적어 올리오니 바로 잡라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이만 줄입니다.⁴⁰⁾

㉔는 제자인 海寄翁 金樞(1805~1865)의 시에 사례하며 쓴 시이다. 오연의 가문과 해기옹의 가문은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김령

40) 권2, 「答周□□相穆」. 惠來五七二篇, 深荷不外, 第念冕於詩家聲律, 專味方向, 向來拙句, 不足煩人廳也. 而偶然宣泄於高明之座, 蓋欲因以受點化之惠, 而酒者來諭滾滾, 張皇獎詡, 有若待之以騷壇老宿, 而自爲後殿, 無乃執事之文章有餘, 鼓舞簸弄, 辭溢意衍, 自不覺其言之過當耶. 自此以往, 若不惜齒牙餘論, 辱與之往復酬唱, 則幸刊落此等浮辭, 只以法語良規, 徹發昏惰, 俾有桑榆之收, 深所望於直諫多聞之友也. 善歌者, 使人繼其聲, 瓊章之後, 不可無賡音, 故拙詩漫爲錄呈, 幸希斤正, 不宣.

의 아들 金麟燮은 종형의 아들 金彦耆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해기옹 김령은 사대부임에도 철종 13년 삼남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입술년 농민 항쟁인 단성 항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령이 보내온 시에 사례하며 해기옹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문하에서 수학하던 제자에게 헛된 말장난은 지양하고 옳은 말로 서로 연마하지는 당부의 뜻을 담았다.

周相穆에게 보낸 ㉠ 역시 그가 시와 서간을 통해 상호 면려하고 진실되게 교류하고자 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그는 상대의 시안을 칭송하고 자신의 시에 대해서는 겸양의 자세를 취하며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고견을 듣고 싶어한다. 시에 대한 좋은 가르침으로 용렬하게 됨을 멀리하며 詩友와의 진솔한 소통을 바라는 것이다.

김면운은 평소애 사용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기록하며 경계의 자료로 삼고, 남의 말을 듣거나 고금의 사실과 의리 문자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았다고 하니 성찰하며 수신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서로를 독려하는 교제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⁴¹⁾

가장⁴²⁾에 의하면 울시와 절구가 精穩, 紆餘, 閑雅하여 독실히 일가를 이루었고, 편지글은 간절하고 인정에 뾰뚱하여 평범한 것이라도 점필재와 한훤당의 평소 경조사 서술을 빌린 것이었으니 모두 언사에 불만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연은 시와 서간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과 상호 勉勵를 통한 자기서사를 표현하였다.

41) 『梧淵先生文集』 권5 〈家狀〉, 雖纖瑣必記曰, 欲令朋友聞吾過而戒之, 聞人語及古今事實義理文字, 亦必審諦而撮錄之, 以爲思省之資, 其自修之密取人之切類如此.

42) 권5, 附錄, 「家狀」, 律切精穩紆餘閑雅篤成一家, 言尤長於書牘反覆懇惻遍盡人情, 雖尋常佔畢寒暄敘素慶弔求借, 率有辭命可觀者.

2) 정체성 고민과 인생의 성찰

오연은 동강의 후손으로 대대로 세거하던 지역 유림 사회의 중임을 맡으며 학문과 인품으로 촉망과 존경을 받았으나 宦路에 진출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궁핍한 가세와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산몽유록〉을 창작한 1825년 경에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시와 편지가 다수 발견된다.

오연이 성대진에게 보낸 편지에는 근년에 온갖 변화를 다 겪었다고 하면서, 원근의 친지의 상을 당하였고 질병이 극심하여 눈이 흐려져서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가 빠져서 음식을 씹을 수도 없으며, 다리가 약해져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⁴³⁾ 또 1824년 처와 형의 상을 당하였고 이듬해 형수의 상을 당하여 매우 슬픈 중에 몰골과 정신은 탄사람이 되었다고 하였다.⁴⁴⁾ 오연에게 이즈음 글쓰기는 자신의 불우의식을 토로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만년에 이런 불우한 상황에서 시와 편지, 소설과 같은 글쓰기로 삶에 대한 회한이라는 자기서사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러 편지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육체가 묘사라는 방법을 통해 서사의 한 주제가 되는 것은 근대 사실주의 문학의 한 특성으로 이 시기의 서사는 사회적·현상적 세계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개인의 육체 문제 역시 서사의 필수 구성요소로 작용하였다.⁴⁵⁾ 오연 또한 자기서사를 통해 육체를

43) 『梧淵先生文集』 권2, 〈與成士琦 大瓊〉, 冕運比年以來, 閱盡滄桑, 遠近至親半入鬼簿, 總功之慘難以枚舉, 而疾病侵尋衰相極備, 眼昏而不能卞字, 齒脫而不能嚼物, 脚軟而不便行步, 數莖光髮無復著梳, 處窮虛之歎已無可言, 而江浦薦歎生事, 聊落窮村措大飽煖終年, 亦非易事良可笑也.

44) 『梧淵先生文集』 권2, 〈與李亨叟 學遠〉, 冕運私家陽九喪禍荐仍, 往年哭妻哭兒, 今夏又遭嫂喪, 種種悲緒, 無以自裁. 重以疾病侵尋, 刑神換奪.

45) Peter Brooks, 이봉지·한애경 옮김,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25쪽.

묘사하면서 삶의 애환과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그의 시와 편지에는 삶의 성찰과 閑雅한 풍격의 내용도 많지만, 자기서사의 장으로서 사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을 기록한 내용도 많다.

㉔ 〈새해 아침에 홀로 앉아 회재 선생의 지일 운을 써서 짓다(을유)〉

〈元朝獨坐用晦齋先生至日韻〉(乙酉)

납설이 풀리기 시작한 따스한 절기 돌아왔으니	臘雪初灑暖律回
희화 ⁴⁶)의 채찍으로 상서로운 빛 보내왔구나	羲和鞭送瑞暉來
젊은 시절 부질없이 천금 ⁴⁷)를 자부하였다가	青年謾負千金帚
흰 머리로 온갖 생각 다 재가 됨을 안타까워하네	白首堪嗟萬念灰
인생의 어지러움 스스로 비웃다가	自笑人生多老草
겨울 대화에 놓인 봄소식에 깜짝 놀라네	忽驚春信放寒梅
언제쯤 벗들과 술 마시며 정겨운 눈길로	何時朋酒開青眼
마음 속 만 섬 소회 다 쏟아낼까	傾寫胸中萬斛懷

㉔는 을유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5년 오연이 51세가 되던 해 지은 시이다. 새해가 되어 따스한 절기가 돌아왔지만,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은 여전하다. 천금추의 뜻을 좇았으나 성취한 것 없이 나이만 들어있는 자신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인생은 이렇게 부질없이 지나갔지만,

46) 요(堯) 임금 때 해를 맡은 회씨(羲氏)와 달을 맡은 화씨(和氏)라는 벼슬. 이들은 역법(曆法)을 관장했다 함.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 이에 회씨와 화씨에게 명하시어 넓은 하늘을 삼가 따르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하여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도록 하셨다. 《書經》 〈虞書堯典〉

羲和鞭白日 少昊行清秋 : 희화는 밝은 해를 채찍질하고, 가을의 신인 소호는 맑은 가을을 거니는구나. 〈杜甫 同諸公登慈恩寺塔〉

47) 誰人肯買千金帚는 ‘누가 천금을 주고 帚를 사려 하겠는가’라는 말로, 《東觀漢記》 〈光武帝紀〉의 “집안에 있는 모지라진 빗자루가 천금처럼 대우 받는다.[家有敝帚 享之千金]”라는 말(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귀하게 여긴다는 뜻)을 원용한 표현이다.

나이가 들어도 그리운 것은 벗들과 허심탄회한 소회를 푸는 것이다. 오연의 이즈음의 시에서는 이렇게 이룬 것 없이 지나가 늙고 약한 몸이 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애와 한탄의 표현이 자주 보인다.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꿈을 같이 했던 벗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도 자주 드러난다.

㉠ 가난은 선비의 일상입니다. 거친 밥 나물국에 군자의 즐거움이 있으니, 흉년의 생계가 어찌 족히 저의 마음에 거리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錦里의 芋栗⁴⁸⁾도 쌓아놓지 못했고, 安豐의 甘旨⁴⁹⁾도 비었으니, 또한 어찌 태연할 뿐일 수 있겠습니까. 면운은 내내 쇠약했는데, 질병이 침노하여 시서를 반복하는 공부는 눈이 흐려져서 전부 사양하고, 봉우와 왕래하는 즐거움은 다리가 약해져 완전히 금하여, 두문불출하며 칩거하니, 고급의 인물들과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생각건대 결발한 이래로 붓을 잡고 글을 짓는 것에 온 정신을 다 쏟아, 문단에서 고삐를 당겨 汗馬와 같은 재주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좋은 시절을 허비하여 희어진 머리로 궁벽한 초가에서 무릎을 안고 길게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한달음을 걸어 다니는 시체와 뛰어다니는 고깃덩어리처럼 정신이 빈약한 쓸모없는 사람으로 달려 왔습니다. 비록 남아있는 글을 수습하여 숙원을 풀고자 하나, 날로 길은 저물고 멀어 언제나 삼가고 두려워집니다. 군자가 덕으로 사랑함은 마땅히 옳은 말로써 은혜롭게 하고, 편달로 시험하는 것인데, 돌아보니 허물을 숨기고 꾸며 비유가 걸맞지 않은 것으로 농담을 하였습니다. 나의 벗은 단정한 선비이니 농담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⁵⁰⁾

48) 금리는 금강 가에 사는 은사로 두보의 시에 ‘까만 각건을 쓴 금리선생, 뜰에서 밤만 모아도 빈곤하지는 않겠구나.(錦里先生烏角巾 園收芋栗不全貧)’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49) 안풍은 당나라의 高士 董召南이 살았던 지역으로 안풍의 감지가 비었다는 말은 청렴하고 효행이 지극한 동소남의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50) 『梧淵先生文集』 권2, 〈答宋亨進 彙純〉. 貧者, 士之常也. 糲飯藜羹所樂存焉. 則荒年計活, 顧何足累我靈臺, 而但錦里之芋栗無儲, 安豐之甘旨屢空, 則亦安得晏然而已乎. 冕運一味潦倒, 疾病侵凌, 詩書燻濕之工, 則眼昏全謝, 朋友過從之樂,

㉔ 예부터 지금까지의 광사를 한정한다면 나는 아직 사휴가 꿈꾼 미침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아! 선비가 태어나 때를 만나지 못하고,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좋은 때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창성한 때를 만나면 경국제세에 뜻을 두고 묘당에 참배하게 되며 생황과 큰 종을 주조한다면 왜 미쳤다고 하겠는가. 일찍이 귀의하여 그 문장을 짓고 예악을 실천하여 비에 목욕하듯이 때를 만나면 또한 어찌 미쳤다고 이르겠는가. 진실로 혹 가슴에 응지를 품었으나 가난한 가운데에 액운이 겹치고 기가 무지개를 토해낼 정도이나 구렁에 떨어져 꼭 막히고 통하지 않으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답답하면 안에 있는 기가 속으로 결리고 밖으로 병이 날로 생기므로 가끔 우주의 공간에서 미친 듯이 노래하고 난폭하게 달리면서 사물의 밖에서 미친 듯이 제멋대로 굴지만, 그 실정인즉 진실로 또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반평생이 궁향에서 자벌레처럼 몸을 굽히고 고슴도치처럼 엎드려 생활하면서 언제나 자나 깨나 옛날의 광사들을 생각하나 아직 하나도 접하지 못하였다. 사휴만이 능히 그것을 꿈꾸었으니 느낀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깊이 빠져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⁵¹⁾

㉕는 송휘순에게 답한 서간이다. 말년의 오연은 노쇠한 몸과 궁핍한 처

則脚軟頓廢杜門跽伏，與古今人絕交，自念結髮以來，操觚弄墨焦神極能，掉鞅於詞苑，汗馬於藝林，枉費了許多好光陰，白首窮廬抱膝長嘯，回視平生直一走肉行屍耳。雖欲收拾殘書以畢宿願，而日暮途遠恒懷兢兢，君子之愛人以德者，宜惠以法言試以鞭策，而顧乃曲爲糺撰，比擬不倫以爲戲之也。則吾又端士也以爲非戲也。則不佞非其人也。

- 51) 권4, 「雜著」, 〈夢狂錄解〉, 古往今來, 狂者, 何限則吾味知士休所夢之狂果爲何狂也. 噫! 士之生也. 不偶而所遇有不同際會昌辰志於經濟拱揖廓廟, 而陶鑄笙鏞則何爲而狂乎. 早得依歸裁. 其成章折旋乎. 禮樂而沐浴乎時雨, 則又何狂之云乎. 苟或胸藏雲雨, 而厄於蓬華氣吐虹霓, 而淪於溝壑塞, 而不通鬱, 而未舒則內氣中痞外感日結往狂歌亂走於宇宙之間狂蕩自恣於事物之外者. 其情固亦有不得已者矣. 顧余生窮巷蠅蝠伏每寤寐想像乎. 古昔之狂士, 而一未得接士休乃能夢之非有所感者深而然乎.

지로 많은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문집에는 그의 가세가 기운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면운의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던 해기옹 김령과 그의 아들 김인섭이 단성의 향촌 사회에 있어서는 유력한 양반 가문인 商山 金氏임에도 世居地 단성을 떠나 호남과 함양을 전전한 사실이나 궁핍함을 견디지 못해 관직에의 꿈을 포기한 사실로 봤을 때 당시 향촌 사회의 대부분의 양반 가문은 경제적인 문제 즉 ‘家業의 濩落’⁵²⁾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조선 사회는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로 농민들이 도탄에 허덕이던 시대였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지방의 사족들이 鄉會나 留鄉所 또는 鄉約 등을 통해 수령을 견제하고 향리들을 감독하던 향촌 자치의 권한을 상실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왕권 강화를 전제로 한 수령권의 강화가 지방 사족의 권한을 억압한 측면도 있었고, 사족들 스스로가 당파와 학맥 혹은 가문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 결과는 왕권 강화와는 반대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령과 향리들이 결탁된 수탈체제로 고착화되어 갔다. 영남의 향촌 선비였던 김면운의 가계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㉔에서 오연은 가난은 선비의 일상임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궁핍한 처지임을 고사를 인용해 드러내고 있다. 내내 쇠약한 몸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벗과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건강한 것도 아니어서 교류가 끊겼다고 안타까워한다. 궁핍한 처지와 노쇠한 몸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과 성찰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한마와 같은 재주를 부릴 수 있었음에도 성과 없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탄식한다. 이렇게 편지라는 양식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서간체 자기서사’⁵³⁾ 라고 하는데 저

52) 金麟變, 『端溪集』, 권 27, 「先父君行狀草」, 父君家業濩落, 至乏十金之儲, 當奉二親, 贅于咸陽.

자가 자신의 지난 삶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아의 사유와 감정 및 삶의 지향을 서술하거나, 자신의 변모 양상과 변화의 계기가 되는 외부 환경 및 사건을 서술하였고 반성과 성찰이라는 특성이 부각된다고 하였다. 오연에게 있어 서간문을 통한 시 공부, 벗들과의 교류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인생을 성찰하는 자기서사로 작용한 것이다.

㉞는 문집 권4의 「雜著」에 〈금산몽유록〉 다음으로 들어가 있는 〈夢狂錄解〉의 일부이다. ‘강서에 사는 이사휴는 우리당의 광간한 선비이다.⁵⁴⁾’로 시작하는 〈몽광록해〉는 이사휴의 몽광록을 풀이한다는 의미의 글이다. 〈몽광록해〉의 시작은 「孟子」 盡心章句下 37절을 떠올리게 한다.

㉞ 만장(萬章)이 물었다.“공자께서 진(陳)나라에 계실 적에 어찌 돌아가지 않았는가? 우리 마을의 선비들은 광간(狂簡)하여 진취적이되 그 처음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계시면서 어찌하여 노나라의 광견(狂獫)한 선비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⁵⁵⁾

여기에서 광간한 선비의 뜻을 살펴보면 ‘狂한 자’는 뜻이 높고 크지만,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獫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도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광자는 뜻이 큰 사람이고 견한 자는 뜻이 굳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오연이 평가하는 이사휴는 광사라고 할 수 있다. 뜻이 큰 선비이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휴가 광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맹자의 다음 말은 이사휴가 왜 광사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53) 안득용, 『한국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325쪽.

54) 江西李士休吾黨狂簡之士也.

55) 『孟子』, 「盡心章句下」 37. 萬章問曰, 孔子在陳曰, 盍歸乎來, 吾黨之士狂簡, 進取, 不忘其初, 孔子在陣, 何思魯之狂士.

㉔ 맹자가 말했다.“공자께서는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견(狂獫)한 자와 함께하리라. 광(狂)한 자는 진취적이고, 견(獫)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기에 차선의 인물을 생각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한 자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는 금장과 증석 그리고 목피와 같은 사람들을 광한 자라고 하셨다.”

“왜 광한 자라고 합니까?”

“뜻이 높고 커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이러한 광한 자를 얻지 못하면, 더러운 것은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 함께하고자 하셨다. 이것이 견한 자이니, 광한 자 다음가는 사람이다.”⁵⁶⁾

성인이 가장 얻고 싶은 사람은 중용의 도를 펼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가는 광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뜻은 크지만, 아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비를 말한 것이다. 김면운의 자아의 형상화이기도 한 이사휴는 뜻을 크게 가진 선비로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면운은 작품의 말미인 ㉔에서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자신은 광사인 이사휴가 꾸는 꿈이 뭔지 모르며 자신의 처지는 궁항의 자벌레나 고슴도치처럼 었드려만 살았다고 토로한다. 또 그런 삶에 대해 시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음을 언급한다.

56) 『孟子』, 「盡心章句下」 37. 孟子曰孔子不得中道而與之, 必也狂獫乎. 狂者進取, 獫者有所不爲也. 孔子豈不欲中道哉. 不可必得, 故思其次也. 敢問何如, 斯可謂狂矣. 曰如琴張曾皙牧皮者孔子之所謂狂矣. 何以謂之狂也. 曰其志嚶嚶然曰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 狂者, 又不可得, 欲得不屑不潔之士而與之, 是獫也. 是又其次也.

이는 조선후기 문인들의 ‘癡’과 함께 ‘癡’, 즉 바보, 멍청이를 자처하고 나서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습적 기준에서 볼 때 미쳤다는 의미를 지닌 ‘백’이 사회적 통념으로는 ‘치’, 즉 바보 멍청이로 인식되었다. 즉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통해 외부와의 긴장 관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자기 서사를 표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문인들이 자신의 문집에 대해 ‘나태하고 졸렬하다⁵⁷⁾’, ‘나의 문장은 장독을 덮는 데 쓰거나 불에 던져버리는 편이 낫다.⁵⁸⁾’와 같이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이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김면운의 자기 상황은 솔직한 처지의 토로이기도 하지만, 겸양과 변명의 의식도 보인다. 자신은 중용의 도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이사휴와 같은 광사도 될 수 없다는 자기서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와 처지를 만나서는 가슴의 울분을 토로할 수 없어 미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금산몽유록>의 오연옹은 이런 김면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 오연옹은 늙었고 관직 생활에 싫증을 느껴 벼슬을 마다하고 세상을 피해 강가의 누추한 집에 은둔하여 살았는데, 다시는 사방에 뜻을 들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흥중에 머금은 뜻이 넓고 커서 황하와 한수로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늘 하늘의 은하수를 건너 우주 밖으로 나아갈 생각이 있었다. 그리하여 천하의 명산대악과 발길을 용납지 않는 특이한 경관 등은 일찍이 마음이 달려가고 향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동경하였더니, 마치 아침저녁으로 다녀온 듯했다.⁵⁹⁾

57) 任天常, 『窮悟集』 「亦言序」, 한국문집총간 속 103, 余性懶而忽於文辭, 或不得已而有言, 亦荒拙不中規, 散簡亂稿, 一弃之塵笥中.

58) 鄭在璽, 『慎窩集』 「慎窩集自序」, 한국문집총간 속117, 昔伊川先生解中庸書, 以不滿意火之, 今此書直無用之煨粕已矣. 奚特不滿意言哉. 履之甌可也. 投之火可也.

59) <錦山夢遊錄>, 梧淵翁, 老而倦遊, 樓遲江上, 偃息蓬圭, 無復四方之志. 然惟胸懷曠然, 河漢無當, 常有凌霄漢出宇宙之想, 凡天下之名山大嶽, 絕蹤詭觀, 未嘗不心馳神, 而若朝暮之適.

㉠에서 〈금산몽유록〉 처음에 등장하는 오연옹에 대한 소개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광사인 김면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우주로 뻗을 정도로 뜻을 크게 가진 선비지만 세상을 잘못 만나 외지고 누추한 곳에 은둔하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산신군과 노량수부의 시비를 다투는 서간을 보고 그는 어지러운 시대나 상황일수록 중용의 도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김면운은 왜 변격의 글쓰기인 단형의 몽유록을 지었을까? 당시에 몽유록의 유형화된 형식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기존의 몽유록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당시 한문 소품문의 단형화 현상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몽유록과는 다른 서간문이 작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파격적 구성과 단형화는 그가 추구했던 지향성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글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우언의 양식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원래부터 우언 자체가 ‘비유기탁을 담은 단형의 이야기’이므로 변격이라기보다는 우언의 양식적 특징에 충실한 몽유록이라 할 수 있겠다. 우언은 의미전달을 위한 설득의 담론으로, 교술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창작에서 효과적인 우의 전달을 위해 구사하는 가상설정, 토의구조, 쟁변화소 등이 본연의 ‘교술성’⁶⁰⁾을 뛰어넘어 서사문학의 속성인 허구성 내지 창조성을 연출하는 데서 정체를 발하였다. 따라서 서사문학, 특히 허구적 서사양식의 전개에 있어서 일찍부터 창작을 거듭하여 발달해 온 우언은 문학적 관습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산몽유록〉은 금산신군과 노량수부라는 신령의 시비비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쟁변 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용의 도를 강조

60)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314쪽.

하려는 문학적 욕구가 드러난 몽유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감정 표출은 주로 서간문과 시를 통해 교류를 했다. 그는 서간문을 통해 스승 및 동학의 유배, 가족상, 건강 악화, 늙음, 가난 등에 대해 자기서사를 솔직히 표출한 문사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자기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는 남명학파의 맥을 이어 받고 있지만, 조선 전기 문인과는 결을 달리하는 시대적 특징을 보인다. <금산몽유록>을 지은 1825년을 전후해서는 이런 자기서사의 글이 문집에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권4, 「잡저」에 첫 번째로 실려있는 <금산몽유록>과 두 번째로 실려있는 <몽광록해>는 정신적 지향을 담은 자기서사를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금산몽유록>의 말미에서 중용의 도를 강조하는데, 주희가 《中庸或問》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中에는 不偏不倚와 無過不及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불편불의는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 상태로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이다. 무과불급은 마음이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 못하지도 않는 상태로서 희노애락의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도 모두 그 상황에 들어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편불의는 마음의 가장 근본 즉 본체라고 할 수 있고, 무과불급은 감정이 드러났지만, 사리에 꼭 들어맞는 즉 상황에 적중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 庸에 대해서 정자는 ‘바꿀 수 없는 것(不易)’이라고 했고, 주희는 ‘언제, 늘, 항상(平常)’이라고 했으니 오로지 언제나 그러하면 변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⁶¹⁾

김면운은 어지러운 시대인 19세기, 향촌의 가난한 유생이지만 평생 서원에서 교장까지 하며 후학을 양성한 스승으로서 이 두 글에 자신의 정신적 지향과 평소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쓴 <몽광록해>에서 중

61)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중용』, 민음사, 2016, 17쪽.

용의 도를 펼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면 이사휴와 같은 광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광사마저도 접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중용이야말로 어지러운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짧지만 강하게 자신의 지향을 표출한 것이다. 아래의 글은 〈몽광록해〉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의 꿈에 대한 의미 지향을 알 수 있는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㉞ 부자는 성자인 고로 주공의 꿈을 꾸며, 자침은 선류인 고로 도사의 꿈을 꾸며, 사휴는 미친 선비인 고로 미친 꿈을 꾸다. 꾸는 꿈은 서로 다르나, 꿈으로 말미암은 바는 같다. 문장에 뜻 둔 자는 글을 쓰거나 짓는 꿈을 꿀 것이고, 벼슬에 뜻 둔 자는 칼을 쓰거나 관에 들어가는 꿈을 꿀 것이고, 굶주리는 자는 배부름을 꿈꿀 것이고 아픈 자는 의원을 꿈꿀 것이다.⁶²⁾

㉞는 〈몽광록해〉에서 개인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꾸는 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꾸는 꿈은 서로 다르나 꿈으로 말미암은 바는 같다.’는 내용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만족하고 자신의 꿈을 꾸라는 의미심장한 전언으로 보인다. 그는 어지러운 시대의 향촌의 한미한 문사였지만, 인격과 학문을 인정받고 후학을 양성한 학자로서 자신이 지향한 인생관을 몽유록을 통해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금산몽유록〉은 금산에 대한 보존과 개방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두

62) 金冕運, 「夢狂錄解」, 夫子聖者, 故夢周公之夢, 子瞻仙流, 故夢道士之夢, 士休狂士也, 故夢天狂之夢, 所夢雖異, 而其所由夢則一也. 志於文章者, 有夢筆夢篆之夢, 志於仕宦者, 有夢刀夢棺之夢, 以至飢者夢飽, 病者夢醫.

신령 사이에 오고 간 편지가 작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몽유록이다. 이 몽유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신령의 첩문의 내용이고 분량도 가장 많이 차지한다. 또 이렇게 등장인물이 적음에도 오연옹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상대는 우의 도사로 한정되어 있다. 몽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신령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편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금산의 보존과 개방에 대해 대립을 보이는 두 신령의 입장의 차이가 그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연옹과 우의도사는 사건의 밖에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연옹은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건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인물로 사건의 밖에서 두 인물의 시비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의 첩문을 모두 읽은 오연옹은 각자의 주장에 일리는 있으나 지나치게 맑아 편협한 금산신군이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려는 노량수부의 태도를 모두 평가하는데, 그는 아주 짧은 언급으로만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그가 짧지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중용'의 도이다. <금산몽유록>의 중용의 도에 대한 강조는 신유박해,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 개인적 불우 등 어지럽게 흘러간 당대의 혼란 속에 중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금산몽유록>의 형상화 양상은 단형화된 서술구조에서 소품문의 변화와 성행으로 인한 영향 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서간문은 사적인 일상에서 공적인 사안까지의 내용을 서사, 의론, 서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편복 또한 다양하며 작가의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짧은 결말이지만 김면운은 몽유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정신적 지향을 토로했다고 할 수 있다. 중용은 난해한 도덕 설교를 늘어놓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극단의 시대에 삶의 주균형 잡기와 관련된 것이다. 또 대충 고민하다 어물쩍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인간의 세계에서 내리는 최선의 결론을 궁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비하거나 소략했던 19세기 몽유록 중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금산몽유록〉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고 작품 분석을 시도했으며 형상화 양상과 자기서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독특한 형식과 주제를 구현한 몽유록이지만 그런 점이 몽유록이라는 문학 갈래에서 간과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타 문학 갈래와의 교섭양상, 개성적인 글쓰기로서의 특질, 자기서사의 기록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논의를 펼쳤다.

이렇게 19세기 몽유록은 이 시기 거대한 소설사의 전개에 있어서는 대중성을 담보하지는 못한 주변부에 있던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사문학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보여준 개성적이고 생명력 있는 문학이라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문제의식은 당대에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서사와 논설의 결합을 통해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계명대 소장본 木活字 『梧淵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문 필사본 『梧淵集』.
姜翼, 「上南冥曹先生書」, 『介庵集』 卷上 張9b / 『南冥集』, 亞細亞文化社刊, 1982.
金宇顛, 「經筵講義」, 『東岡集』.
金麟燮, 『端溪集』, 권 27, 「先父君行狀草」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중용』, 민음사, 2016, 1~140쪽.
『孟子』, 「盡心章句下」 37.
成汝信, 「里仁爲美」, 『浮查集』 권1 장13b(『韓國文集叢刊』 58.
元景夏, 「送李士浩時中往遊楓嶽序」, 『蒼霞先生文集』(경인문화사 영인본), 『한국역대문집총서』 2435.
李光友, 「送河覺齋沆歸德川序」, 『竹閣集』.
李晚燾, 『響山集』 13, 〈恥菴崔公墓碣銘〉.
任天常, 『窮悟集』 「亦言序」, 한국문집총간 속 103.
張載, 『正蒙』, 〈中正篇〉.
張載, 『古文眞寶』 後集 卷十, 〈東銘〉.
鄭在燾, 『慎窩集』 「慎窩集自序」, 한국문집총간 속 117.
「富金勉運書」, 『洛下生集』 冊 19〇洛下生藁〔下〕 卻是齋集.
- 강혜중, 「오연 김면운의 생애와 시문학」, 『남명학연구』 6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9, 137~165쪽.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1~382쪽.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 서사」,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239~271쪽.
서신혜, 「〈만하몽유록〉을 통해 본 애국계몽기 선계 서사의 양상」,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49~75쪽.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역락, 2012, 1~653쪽.
신정근, 『중용, 극단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사계절, 2010, 1~293쪽.
신해진, 『조선후기 몽유록』, 역락, 2008, 1~331쪽.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95~121쪽.
안득용, 『한국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1~396쪽.

- 양언석, 「夢遊錄小說의 敘述類型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夢遊錄小說의 敘述類型研究』, 국학자료원, 1996. 재수록, 1~324쪽)
- 양혜승, 「19世紀 夢遊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78쪽.
- 정우락, 「남명학과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이중구조와 의미지향」,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7~74쪽.
- 정용건, 「조선 후기 문집 자서의 창작과 그 특징」, 『민족문학사 연구』 6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75~110쪽.
- 정용수, 「〈금산몽유록〉 연구」, 『반교어문연구』 7, 반교어문학회, 1996, 147~166쪽.
- 정필모,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노장사상의 인식론과 언어관」, 『언론과학 연구』 12, 한국지역언론학회, 2012, 130~155쪽.
-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1977, 277~299쪽.
-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1~540쪽.
- 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세계』, 월인, 2009, 1~379쪽.
- 차용주, 『한국한문소설사』, 아세아문화사, 1989, 1~453쪽.
- 하지영, 「18~19세기 꿈의 형상화와 자기표현 방식」, 『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101~134쪽.
- Peter Brooks, 이봉자·한애경 옮김,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1~532쪽.

ABSTRACT

The Shape and Features of “Geumsan Mongyurok”

Yang, Hye-seung

“Geumsan Mongyurok” is a unique structure in which the letters between the two spirits, which are divided due to the preservation and opening of Geumsan Mountain,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work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two spirits who show conflict over the preservation and opening of Geumsan Mountain is main contents. Although Oh Yeon-ong is the main character, he is a person who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cident, and maintains an objective attitude toward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haracters outside the case. Oh Yeon-ong, who has read all of their letters, evaluates both the narrow Geumsan godly lord and the Noryangsubu’s attitude to embrace everything, but he suggests solutions only with very short remarks. Here, what he claims short but strong is the intention of ‘mediation’.

Although it is a short ending, Kim Myeon-woon expressed his reflection and spiritual orientation through Mongyurok. It is easy to think that mediation is an esoteric moral sermon, but it is related to balancing life in the era of extremes. He also said that it is not to make a compromise after thinking roughly, but to think fiercely and ask for the best conclusion to come out of the human world. In this way, Mongyurok in the 19th century can be said to be a unique work in the periphery that did not guarantee popularity in the development of a huge novel history during this period, but it can be evaluated as a unique and vital literature that showed the diversity and abundance of epic literature.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local intellectuals in the 19th century can be foun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shows the personal and social situation facing the time and teaches lessons through the combination of narrative and editorial.

Key Words

“Guemsan Mongyurok”, Monotypicization, epistle, moderation, fable, individual writing, Self-narrative

논문투고일: 2022.10.14.

심사완료일: 2022.11.04.

게재확정일: 2022.11.07.